

말씀의 샘

구원과 주되심 <이사야 43장 1~3절>

사순절. 주님이 우릴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 순히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생각을 뛰어 넘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과 목적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후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고 핏 값으로 사신 구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심령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구원과 주가 되시는 것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는 시도 때문에 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릴 값 주고 사셔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되심은 우릴 속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첫째, 먼저 구약에서 구원과 주 되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에 의한 압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어 능력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을 수 없는 하나님 것에 대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등등, 하나님 백성으로의 덕목이 많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 것에 대한 확실한 구별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구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철저히 구분 지으십니다.

출애굽기 1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초대생 규례에서도 하나님의 의종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세리모니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애굽 군대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값주고 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홍해를 건너듯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소유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곳에서 꺼내준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주인으로 섬겨라, 다른 신에게는 절도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또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새기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가나안땅을 정복하는 일을 직접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자가 내린 결론, 정당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걸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도자는 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저주를 받았습니 다.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열

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느라 핍박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메시지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주인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냐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약에서 구원과 주 되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청년, 돈 많은 관원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슈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는 고민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청년이 가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8: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쉽지 않습니다. 다 뒤로 하기에는 우리 삶에 너무도 비중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 재산, 가족, 그 외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우선으로 해라. 한마디로 주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하면 금세에 여러 배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던 능력의 공동체가 된 요인은 다름 아닌 주 되심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뒤로하며 부활의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을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 삶에 주인이 되실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 됨의 모든 권한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면,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다스리심의 능력이 꼭 나타납니다. 초대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처럼 모두의 삶과 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2016. 2. 28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3. 1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출애굽기 13:14~22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구원과 주 되심의 과정"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